

팬이

독후활동지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미래. 인간들에게도 로봇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중
별난 괴짜 '로봇-5089'는 한 가지 난제에 부딪혔다. 로봇에게 금기시되는 예술을 꿈꾼
대가로 자발적 리셋을 택하거나, 파기될 처지에 놓인 것. 그러나 로봇-5089는 스스로
에게 '팬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리셋을 거부한다. 한편, 학교 폭력을 당해 마음의 문을
닫게 된 열 살 소년 '동운'은 자신을 로봇 '우리'라고 주장한다. 끈질긴 요구로 로봇 심리
학자 '수전'과 만난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 "리셋해주세요."

자신을 찾기 위해 예술을 선택한 로봇과 자신을 잊기 위해 로봇이 되길 선택한 소년,
진정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 고통을 느끼고 싶은 로봇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로봇
이 되기로 한 소년. 세상에 걸도는 두 '모난 돌'의 예측 불가 우정과 성장 스토리!

이름

학교/학년

지도교사



1. 인공지능, 로봇이 예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내가 만약 로봇 개발자라면, 어떤 부분에서 로봇과 인간의 차이점을 만들고 싶나요?



3. 동운(위리)의 엄마는 학교 폭력 피해자인 아이를 위해 귀신 분장을 하고 직접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동운이라면, 학교 폭력을 당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나요?

4. 위술의 행위예술은 많은 대중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내가 위술이 하는 행위예술의
관객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나요?



5. 우리는 '리셋'을 통해 고통을 잊고자 했습니다. 내게도 리셋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어떨까요? 삶을 리셋하게 된다면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적어봅시다.

6. 곧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로봇 시대가 도래한다면, 나는 팬이와 우리처럼 로봇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